

고창 반암리서 초기 '청자 가마터' 확인

벽돌·진흙 중첩 아파트형 가마터 국내 청자 도입·전개과정 밝힐 열쇠 건물지 2동·청자·도기 등도 출토

고창군은 고창군 반암리에서 우리나라 청자의 도입과 전개과정을 엿볼 수 있는 초기 청자가마터가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고창 반암리 청자요지는 지난해 문화재청 긴급 발굴조사 지원사업을 통해 벽돌가마 1기와 진흙가마 3기, 퇴적구릉, 건물지 등이 일부 확인됐다. 이에 올해 (재)조선문화유산연구원(원장 이택구)에서 가마터의 성격과 범위 등을 규명하기 위해 발굴조사에 나서 벽돌가마(전축요) 1기, 진흙가마(토축요) 4기, 건물지 2동 등이 확인됐다.

벽돌가마는 지난해 문화재청 발굴조사를 통해 후대의 진흙가마와 중복돼 단면 상에서 일부 흔적이 확인됐으나, 올해 발굴조사에서는 조사범위 가장 윗부분에서 가마의 소성부(燒成部·그릇을 두는 곳)와 연도부(燒成部·연기가 빠져나가는 곳)가 확인됐다.

노출된 벽돌가마는 길이 7.8m, 너비 2.7m, 바닥경사도 10도 내외로 가마 축조는 구 지표층을 사선으로 굴광한 다음 벽돌을 얹혀 쌓기했다. 가

마 축조에 사용된 벽돌은 잔존 7단 정도이고, 3회 정도 개축해 운영했음이 밝혀졌다.

진흙가마(2호-5호)는 총 4기가 확인됐다. 2호 가마는 3-5호 가마와 중첩돼 있어 그 존재만 파악됐고, 4호 가마가 폐기된 이후 5호 가마가 만들어졌음이 확인됐다.

진흙가마는 길이 10-12m, 너비 1.5-1.9m 정도이며, 화구(火口)는 석재를 4-5매 쌓은 후 양쪽에 기다란 석재를 세워서 축조했다. 불턱이 없어 연소부와 소성부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나 연소부에서 폭이 줄어들다가 소성부는 약간 넓어지는 양상이다.

건물지는 2기가 확인됐는데 조사구역 외곽까지 확장된다. 이중 1호 건물지는 3호 가마에서 경사면 아래쪽으로 1.7m 정도 떨어져 자리하며 기단 석렬과 적심석, 초석(礎石·주춧돌) 등이 일부 노출됐다. 건물지 규모는 정면 3칸으로 추정되며, 주간거리는 2.7m 내외이다.

유물은 청자, 갑발, 도기, 기와 파편 등이 출토됐다. 독립문형 청자와 화판형 접시, 잔, 주자, 호 등도 소량 확인됐다.

갑발(屐鉢·불갑)과 재 등이 청자에 직접 닿지 않도록 청자 위에 씌우기 위해 점토로 만든 그릇(은발형과 복발형, 원통형 등이 있음)은, 갑발 받침과 무경도 확인됐다. 특히 갑발 바닥과 앞면에서는



고창 반암리 청자가마터(아래)와 출토된 유물들(위)

특수한 형태의 문양(부호)이 확인되어 주목된다.

이번 발굴조사를 통해 고창에 초기청자를 생산하는 벽돌가마의 명확한 존재와 축조기법이 밝혀졌다. 벽돌가마는 고려 수도인 개경(開京) 중심의 중부지역에서 주로 확인되는데 최근 진안 도동리에서도 발굴돼 사적으로 지정됐다. 따라서 이번에 고창 반암리 청자요지에서 잔존상태가 양호한 벽돌가마가 명확히 확인됨에 따라 사적 등 문화재 지정 가치가 높다는 평가다.

특히 고창 반암리 청자요지에서는 벽돌가마 이후에 축조되는 진흙가마도 4기가 조사돼 우리나라 청자의 도입과 전개과정을 한눈에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된다. 협소한 조사범위 내 5기의 초기청자 가마가 중첩되어 축조된 양상은 '아파트형 가마터'라고 말할 수 있으며, 아직 우리나라에서 보고된 사례가 거의 없다.

학술자문회의에 참석한 이종민 충북대학교수(문화재청 문화재위원)는 "초기 청자가마로는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하고 벽돌가마에서 진흙가마로의 변화 양상이 명확히 확인되는 등 우리나라에서 매우 보기드문 유적이다"며 "10세기 후반경부터 오랫동안 운영됐고 대형 건물지까지 확인돼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우수하만큼 추가조사 등을 통해 사적 지정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전북 서남상의, 정읍시에 장보기 가방 1000개 전달



전북 서남상공회의소는 지난 13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400만원 상당의 장보기 가방 1000개를 정읍시에 전달했다. <사진>

이날 기탁된 장바구니는 2021년 회장 및 임원 취임식을 생략하고 현장 방문과 각 기관과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제작됐으며 올 여름 휴가철 및 추석 명절 등을 앞두고 샘플시장 등 전통시장 등을 찾는 고객들에게 나눠줄 예정이다.

최종필 서남상공회의소 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정읍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장보기 가방을 준비했다"며 "시장이나 마트에서 장 볼 때 유용하게 사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더욱 지쳐있는 소상공인과 시민들을 위해 소중히 전달하겠다"며 "소상공인과 시민이 함께 웃을 수 있도록 경제 활성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군산 전통명가 발굴 육성 올해도 6개 업체 선정 컨설팅·700만원 지원

군산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군산의 역사와 지역 이야기를 간직하고 보존 가치가 있는 '군산 전통명가'를 발굴해 눈길을 끌고 있다.

16일 군산시에 따르면 군산 전통명가 발굴 육성사업은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묵묵히 시민의 삶과 더불어 동행해 온 오래된 가게를 발굴해 더 오래 이어 갈 수 있도록 추가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에도 30년 이상 지속적으로 동일 업종을 영위한 소상공인, 가업승계자를 대상으로 6개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업체는 군산 전통명가 인증현판과 인증서뿐만 아니라 홍보마케팅과 1대1 컨설팅, 업체당 700만원의 경영환경개선 지원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에는 경영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선택할 수 있어 업체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업은 오는 21일까지 접수받으며,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또는 시 소상공인지원과(063-454-2674)에 문의하면 된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순창군, 전통메주에서 발효 균주 분리... "식품업체에 공급"

'황국1호' 하반기부터 대량 생산 장류 주원료 콩 분해 능력 탁월

순창군은 전통 메주에서 발효 능력이 뛰어난 균주 '황국1호' (사진)를 분리했다고 16일 밝혔다.

순창군은 황국 1호를 하반기부터 대량 생산해 발효식품 기업에 제공할 계획이다.

순창산 자연 발효 전통메주에서 분리한 황국 1호는 장류 주원료인 콩 단백질과 쌀 탄수화물의 분해 능력이 뛰어나고 균은 설명했다.

황국주 순창군수는 "황국 1호는 항고지혈 및 항당뇨 활성화 성분도 지녀 장류, 발효주, 발효식품 등 중군으로 쓸 수 있다"며 "대량 생산해 국내 발효식품 기업에 보급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정양근 기자 jyg@kwangju.co.kr



아름다운 노년기 '시니어 춘향이'는 누구? ...남원시 18일 선발대회

'춘향의 고장' 남원에서 아름다운 노년기 여성의 표본이 되는 '시니어 춘향'을 선발한다.

남원시는 신노년문화를 주도하는 노인상을 정립하고자 오는 18일 안숙선명칭의 여정(남원에촌)에서 '제5회 전국 시니어 춘향 선발대회'를 개최한다.

지난달 16일까지 24명의 신청을 접수해 같은 달 20일 서류심사를 거쳐 본선에 진출할 12명이 가려

졌다. 시니어 춘향은 만60세 이상의 여성 중에서 ▲주름이 아름다운 분 ▲지역사회에 공헌한 분 ▲삶의 감동적 이야기가 있는 분 ▲신노년 문화를 이끄는 분 등을 선발요건으로 심사한다.

1등 대상은 250만원, 2등 금상은 100만원이며 본선 참가자 전원에게 참가상 1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입상자는 남원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남원시를 대표하는 시니어 모델로 활동하게 된다

대회는 코로나19의 방역수칙이 철저히 준수되는 가운데 예년보다 규모를 축소해 치러질 예정이다. 다만 김미나 명창의 '사랑가' 한 대목과 왕기석 명창의 '심청가' 판소리를 비롯해 지역 청소년이 펼치는 열정의 무대로 꾸며진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익산시 15일부터 5개월간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 24시간 비상대응체제 가동

익산시가 끊이지 않는 자연재난과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 나섰다.

익산시는 지난 15일부터 5개월 동안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24시간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한다.

시는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현장 점검계획을 수립해 대책반을 구성했다.

대책반은 분야별 재해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24시간 대응체제를 유지한다.

시는 해당 기간 동안 위험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시설물 점검에 나선다. 특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상시 관리와 침수 우려 지역 관로 상태(퇴적토 적체, 파손)를 상시 점검해 침수·침하 사전예방에 나선다.

점검대상은 급경사지 15곳, 세월교 2곳, 배수펌프장 12곳, 산사태 취약지역 31곳, 소화전 정비사업 2곳, 우수저류시설 3곳,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3곳, 50억원 이상의 대규모 공사장 9곳 등 모두 77곳이다.

시는 이번 점검 기간 동안 침수우려지역 17곳의 우·우수관로에 대해 CCTV를 확인하고 100km의 기계 준설을 완료할 계획이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엄마, 보고 싶어요

음주운전!
당신 자녀의 미래가 사라집니다.

만취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최고 무기징역!

2018년 음향보음이 통과되면서 음주운전 적발 및 사고 시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